제2부 신앙감정이 진정으로 은혜로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는 표지들

2부 · 소극적 표지 10: 찬송을 열심히 부름

『신앙감정론』 제2부(신앙감정이 진정으로 은혜로운지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없는 표지들) 중 열 번째 소극적 표지, 인쇄 249~251쪽

🧭 흐름 한눈에

에드워즈는 먼저 명제를 세웁니다. 신앙감정이 사람을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감정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앞 표지(신앙적인 일에 시간을 많이 씀)에도 들어 있지만, 많은 사람이 찬양을 은혜의 확실한 증거로 여기기 때문에 따로 다룹니다.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은혜 없이도 감정은 뜨거워질 수 있고, 모든 참 감정에는 가짜가 있습니다. 그러니 찬양은 그 사람에게 불리한 증거도, 유리한 증거도 아닙니다. 이어서 그는 성경의 실례를 쌓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군중, “호산나”를 외친 무리, 홍해에서 노래한 이스라엘, 입으로만 사랑한 에스겔 시대 백성이 그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값없는 은혜'를 높이며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는 찬양조차 확실한 표지가 아님을 보입니다. 그 근거로 사울, 느부갓네살, 다리오를 듭니다.

🪪 표지 카드

표지 10(소극): 감정이 사람을 입으로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한다는 사실은, 그 감정이 참 신앙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표지가 아니다.

찬양은 감정이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 강한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도 끝내 믿지 않거나, 금세 잊거나, 마음은 딴 데 있던 사람이 가득합니다.

📜 절별 정리

📜 1. 명제, 그리고 이 표지를 따로 다루는 이유

에드워즈는 이 표지가 앞의 내용과 겹친다고 스스로 밝힙니다. 바로 앞의 표지 9(신앙적인 일에 겉으로 시간을 많이 씀)에 포함되고, 더 앞의 논의에도 암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따로 다루는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 하고, 입이 찬양으로 가득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으로 “함께 찬양하자”고 권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이 은혜의 분명한 증거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의 첫 번째 원칙은 공정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누가 열심히 찬양한다는 이유로 그를 의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미 입증한 사실이 있습니다. 은혜 없이도 사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고조된 감정을 가질 수 있고, 감정이 강하면 감동받은 일을 진지하게 많이 말하게 됩니다. 또 모든 은혜로운 감정에는 모조품(겉모양은 같지만 성령에게서 나오지 않은 가짜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니 찬양하는 성향은 그 사람을 지지하는 근거도 될 수 없습니다.

1. 찬양은 은혜의 반대 증거가 아니다
2. 그렇다고 찬성 증거도 아니다
3. 은혜 없이도 감정은 뜨거워질 수 있다
4. 모든 참 감정에는 가짜가 있다
5. 많은 이가 찬양을 확증으로 오해한다

> **(이 절에는 직접 인용 구절 없음)**
> 원리만 세우고, 성경의 근거는 다음 절들의 실례로 제시한다

“모든 은혜로운 감정에 모조품이 있을 수 있다”

📜 2. 복음서의 군중: 기적을 보고 영광을 돌린 사람들

에드워즈는 이 원리가 성경의 실례로 “더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증인은 예수님의 설교와 기적 곁에 있던 군중입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자 모두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는 것을 본 무리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인 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을 때는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회당마다 뭇사람의 칭송을 받으셨고, 십자가 직전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큰 외침 속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무리 가운데 다수가 곧 그분을 버렸습니다. 이 흐름이 함축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격이 곧 구원받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1. 기적 앞의 감탄은 누구나 할 수 있다
2. 군중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3. 예수님을 극도로 칭송하기도 했다
4. 호산나를 외친 무리, 곧 등을 돌렸다
5. 찬양의 열기가 회심의 증거는 아니다

> **마가복음 2:12**
> 중풍병자 치유를 보고 모두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
>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 **마태복음 9:8**
> 같은 사건의 병행 기사, 무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
>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 **누가복음 5:26**
> 같은 사건의 병행 기사, 군중의 경외와 찬양
>
>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치유를 본 무리가 기이히 여기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누가복음 7:16

나인 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자 모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함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누가복음 4:15

예수님이 회당에서 뭇사람의 칭송을 받으심(그리스도를 높이는 칭찬)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마태복음 21:9

십자가 직전 “호산나”를 크게 외친 무리(본문 인용, 장절은 원문 미표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 3. 사도행전과 구약: 찬양한 뒤 잊거나, 입만 찬양한 사람들

실례는 승천 이후와 구약으로 이어집니다. 사도들이 못 걷는 사람을 고치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에드워즈가 주목하는 점은 그다음 구절입니다. 그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었습니다. 찬송한 사람과 믿은 사람이 같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뒤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곧 그 일을 잊었습니다. 에스겔 시대 백성은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표현했지만 마음은 자기 이익을 따랐습니다. 이사야는

이라며 하나님을 들먹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찬양하는 입과 믿음의 원수인 마음이 한 사람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모두 찬양했으나 일부만 믿었다
2. 홍해의 노래 뒤에 곧 망각이 왔다
3. 입의 사랑과 마음의 욕심이 따로 놀았다
4. 믿음의 원수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5. 거짓 신앙고백자의 찬양은 예언된 일이다

> **사도행전 4:21**
> 앉은뱅이 치유 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찬양은 보편적이었음
>
>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 **사도행전 13:48**
> 찬송한 이방인 중 '작정된 자'만 믿음. 찬양과 참 믿음이 구별됨
>
>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 **시편 106:12~13**
> 홍해에서 찬송했으나 곧 하나님의 일을 잊음(에드워즈가 요약한 사건)
>
> [12]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13]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 **에스겔 33:31**
> 입으로는 사랑을 많이 보이나 마음은 이욕을 좇음(에드워즈가 요약한 말씀)
>
>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이사야 66:5

참 백성을 미워해 쫓아내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에 올림

>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에스겔 시대의 유대인들도 입으로는 많이 사랑했으나, 그들의 마음은 자신의 이욕을 좇았다."

📜 4. '값없는 은혜'를 높여도: 사울의 눈물 어린 고백

에드워즈는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소망과 위로 속에서 "이 무가치한 나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자비를 베푸셨다"며 은혜를 크게 높이는 찬양조차 확실한 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경건해 보이는' 찬양이라 더 날카로운 지점입니다. 교만이 그대로 있고 하나님께 적의를 품은 사람도, 하나님께 특별한 친절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자기의 무가치함을 외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가치함을 진짜로 깨달아서도, 어떤 높은 원칙에서 나와서도 아닙니다. 사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일 기회를 두 번이나 그냥 넘기자, 왕인 사울은 "내가 범죄하였고 어리석었다"며 울부짖고 다윗을 큰 감정과 존경으로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꺾이지 않은 교만과 다윗을 향한 적개심은 그대로였습니다. 받은 혜택에 감동한 것이지, 마음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1. 은혜를 높이는 찬양도 확증은 아니다
2. 혜택을 받으면 교만한 자도 감격한다
3. "나는 무가치합니다"도 흉내 낼 수 있다
4. 사울은 울며 고백했지만 미움은 여전했다

사무엘상 24:16~19

다윗이 목숨을 살려 주자 사울이 울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다윗을 높임

16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17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18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19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상 26:21

두 번째로도 "내가 범죄하였고 어리석었다"고 고백하지만 변하지 않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 5. 이방 왕들: 느부갓네살과 다리오의 찬양 조서

마지막 증인은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의 왕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보고 겪은 하나님의 섭리(세상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풀무불에서 살아난 세 친구, 그리고 자신이 짐승처럼 쫓겨났다가 회복된 일이 그것입니다. 그는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리오도 사자 굴에서 다니엘이 살아난 것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두 왕은 자기 혼자 찬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 나라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까지 했습니다. 이는 1절에서 말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높이라고 권하는 열심"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 열심까지도 은혜 없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에드워즈의 결론입니다.

1. 섭리를 체험하고 크게 감동할 수 있다
2. 이방 왕도 하늘의 왕을 찬양했다

다니엘 3:28~30

풀무불 사건 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조서를 내림

28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9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30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다니엘 4:1~3

느부갓네살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적을 선포함

1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2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3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니엘 4:34~35

회복된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분을 찬양함

34 그 기한이 차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5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다니엘 6:25~27

> 25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26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 오해와 반론

📖 용어

신앙감정(affection)
하나님과 신앙의 일에 대해 마음이 끌리거나 싫어지며 강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의지의 깊은 움직임입니다.

소극적 표지
참인지 거짓인지 판정하는 데 쓸 수 없는 표시, 곧 “이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목록입니다.

은혜로운 감정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 마음에서 나오는 참된 신앙감정입니다.

모조품
겉모습은 참 감정과 같지만 성령의 은혜에서 나오지 않은 가짜 감정입니다.

신앙고백자
겉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참 성도일 수도 위선자일 수도 있습니다.

위선자

스스로 또는 남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이지만 마음이 실제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값없는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대가 없이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섭리
하나님이 세상과 역사의 일을 다스리고 이끄시는 손길입니다.

작정된 자(선택된 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미리 정하신 사람들로, 사도행전 13:48의 표현입니다.

⚖️ 거짓과 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남에게 권하는 열심은, 그 감정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정하지 못합니다.
- 은혜 없이도 감정은 뜨거워질 수 있고, 모든 참 감정에는 모조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 성경은 기적을 본 군중, 호산나의 무리, 홍해의 이스라엘, 사울, 이방 왕들을 통해 찬양과 참 믿음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 '값없는 은혜'와 '내 무가치함'을 높이는 찬양조차 교만한 마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찬양을 의심하지도, 의지하지도 말고, 마음의 변화와 삶의 열매에서 참된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 신앙감정론 9편 ·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하는데 · 표지 9·10 (준비 중)

빛다방 학습 노트 ·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부흥과개혁사, 정성욱 역)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표지 카드 문장은 1746년 영문 원문(공유 저작물)에서 새로 옮겼습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